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및 家庭生活滿足

— 서울시 主婦를 中心으로 —

Value Orientation, Decision Making Style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From The Wives Living in Seoul—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임 정 빈

부교수 : 문 숙 재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Im, Jung-Bin

Associate Prof. : Sook Jae Moon

目 次

- | | |
|----------------|-----------------------------------|
| I. 序 論 | 3. 家庭生活滿足 |
| II. 理論的 背景 | 4.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 |
| III. 研究設計 및 方法 | 5. 意思決定樣式과 家庭生活 滿足 |
| 1. 研究模型 | 6.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및 家庭生活滿足度와의 關係 |
| 2. 測定道具 | 7. 家庭生活滿足度の 回歸分析 |
| 3. 資料蒐集 및 處理 | V. 結論 및 提言 |
| IV. 結果 및 解釋 | 參考文獻 |
| 1. 價値性向 | |
| 2. 意思決定樣式 | |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initiated under the hypotheses that value orientation of wives is closely related to their decision making style in home management and that family life satisfaction of wives varies according to their decision making style.

To test the hypotheses, the following procedures were undertaken : (1) developing measurement instruments for value orientation, decision making style,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 (2) finding value orientation of wives, their decision making style, and their family life satisfaction by applying the measurement instruments ; (3) finding the variables highly affecting value orientation, decision making style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 and(4) finding the causal mechanism among value orientation, decision making style,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In conclusion, preferences of wives for humanism in value orientation were expected to lead decision making style to person-oriented rather than task-oriented style and, furthermore, to result in higher family life satisfaction.

I. 序 論

家庭管理의 目的은 家族의 價値와 目標을 糾明하고 使用可能한 資源을 파악하고 개발하며 意思決定을 통하여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行動을 위한 計劃을 세우고, 結果를 評價하여 그 結果를 換流(feedback)시킴으로써 다시 投入要素에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家庭管理의 成功與否는 家族의 滿足程度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므로 家庭管理研究에 있어서 動機要素인 價値와 遂行過程인 意思決定樣式과 그리고 그 結果的 要素인 生活滿足程度間의 相互關係에 관한 研究가 要求된다.

그러나 家庭管理研究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변인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主婦의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 및 家庭生活滿足度間의 相關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家庭管理研究에 體系的 接近方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投入(input)의 基本요소인 價値와 管理過程(throughput process)인 意思決定樣式的 相關性을 研究하고 糾明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첫째, 現代家庭生活에 있어서 表現되는 價値와 意思決定樣式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價値와 意思決定樣式과 生活滿足度間의 相互關聯的인 概念的 構造를 挑出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目的을 設定하였다.

1.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그리고 家庭生活滿足度에 相關된 理論的 體系를 確立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2. 理論的 考察을 기초로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그리고 家庭生活滿足에 관한 測定道具를 개발한다.

3. 主婦를 對象으로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 및 家庭生活滿足度の 實態를 파악한다.

4.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 그리고 家庭生活滿足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 파악한다.

5.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 그리고 家庭生活滿足度間의 關係를 調査 分析한다.

6. 家庭生活滿足度を 높일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한다.

II. 理論的 背景

1. 價値性向

價値를 人間行動을 支配하는 要素로 보는 학자로서 Kluckhohn과 그동료(1967)를 들 수 있다. 이들은 價値를 人間行動과 相關하여 糾明하면서 價値는 行動의 目標, 手段, 樣式의 선택에 影響을 주며 個人이나 集團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明示的 혹은 默示的 觀念이라 하였다.

Kluckhohn등은 人間이 自然과의 調和속에서 人間指向的인 思考와 行動을 하는가 혹은 自然, 즉 物質指向的인 行動을 하는가를 區別하게 하고 人間の 他人과의 關係를 重要視 하는가, 縱的關係를 유지하는가, 橫的關係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個人主義的인 思考와 行動을 하는가를 고려하게 한다. 즉 人間の 本質, 自然과의 關係, 人間關係에서 作用하는 哲學을 價値라 하고 있다.

Bengtson(1973)은 價値는 行動을 支配하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概念으로서 社會的 構造와 人性間의 重要한 概念的 關係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Rokeach(1973)에 의하면 價値는 行爲의 特定한 方式과 實存의 窮極的인 狀態라는 持續的인 概念이며, 價値는 個人的 行動을 지배하고 의사결정과 갈등 해소와 行爲의 정당화를 위한 標準을 제공하고 自尊心을 維持, 持續시키는 當爲的인 特性을 갖는다고 하였다. 문숙재(1983)는 價値는 人間の 行動方法,

自動可能性중에서 最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므로 人間行動決定의 根本的인 尺度가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Kluckhohn(1967), Bengtson(1973), Rokeach(1973), 문숙재(1983) 등은 價値를 人間行動을 支配하는 要因으로 보았다. 한편 價値를 個人的인 선택을 위한 信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두현(1975), Chamberlain과 Kelly(1975) Paolucci, Hall과 Axinn(1977) Rath, Harmin과 Simon(1978) 등은 價値를 選擇을 위한 信念, 決定의 指針 혹은 선택의 기준으로 보았다.

또한 Melson(1980)은 價値는 制限된 資源의 活用順位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價値化하는 것은 정보와 에너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한편 Shannon(1972)은 價値는 事物에 대한 測定指標가 된다고 하였다. 즉 분명한 선택이나 선호, 특별히 강조하거나 주장할 때 또는 社會的 制裁의 指標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價値性向은 概念을 價値概念과 구별해서 定義하고 있다. Kluckhohn과 그의 동료들은(1967) 價値性向은 價値와 實存的인 要素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연계성 있는 命題(proposition)라고 하였으며, 一般的이고 組織된 概念, 眞理, 명확한 實存的判斷을 포함하는 價値觀念을 價値性向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해서 가치성향은 自然, 自然속에서의 人間의 위치, 人間과 人間의 關係, 人間과 環境 및 人間相互關係를 관련시켰을 때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概念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價値性向은 어떤 전반적인 行動體系의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文化의 특질과 분화를 특징짓는 性向의 特性은 근본적으로 그 文化의 價値性向體系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Bengtson(1975)은 價値性向의 多次元的인 操作化(multidimension operationalization)를 개발하려는 시도, 要因分析方法을 사용하여 價値次元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는 시도, 그리고 價値構造의 規範的

定義를 명백히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價値는 上位級의 認識의 범주에 따라 형성되고 조직된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Bengtson과 Lovejoy(1973)는 價値性向에 대한 잠재적인 行動要件으로서의 社會的構造와 主觀的인 狀態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價値는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實際的인 의미에서 고찰되는데 경험은 사회적 구조와 관계되는 것도 있고 심리상태와 관계되는 것도 있다고 본 것이다.

Engbreton(1965)은 個人的 價値는 糾明될 수 있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價値는 家庭에서 주부의 결정상황에 있어서 지배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假定하였다. 그리고 個人的 價値를 糾明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客觀化 시킬 수 있는 道具를 개발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價値를 分析하여 4가지 價値의 類型을 도출하였다. 즉 傳統的(traditional) 社會的(social), 自律的(autonomous), 變化追求的(change-prone) 價値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문숙재(1981)는 人間은 物質的 價値와 精神的 價値에 대한 자신의 생활태도에 의하여 家庭管理行動의 實際的 方向을 제시하게 되므로, 家庭管理行動을 하는 사람의 生活表現의 姿勢는 物質的 進歩와 精神的 價値의 두가지 性向중에서 그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家庭管理者의 價値性向, 家庭管理行動, 그리고 意思決定간의 긴밀한 關係성을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정관리 행동에서 價値는 선택을 하는 행동의 모든 단계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狀況을 認知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認知하고 順位를 정하였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목표선정을 하는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aolucci 등 1977).

2. 意思決定樣式

종래 意思決定類型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Blood와 Wolfe(1960)의 資源理論的 측면에서 이루어

어졌다. 즉, 夫婦間에 조성되는 權力構造에 따라 남편우위형, 부인우위형, 혼합형, 민주형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종래의 이와같은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Melson 1980).

Street(1981)는 權力과 意思決定의 다양한 概念間的 구별을 하지 못한 점, 최종 의사결정자 이외의 다른 가족구성원의 권력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오히려 그는 性役割態도와 性的 典型的 類型과 같은 認識的인 變數가 家族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意思決定樣式에 관한 연구를 개괄하면 意思決定을 個人的인 行爲로 보고 地位와 役割에 따라 意思決定樣式이 변화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Bustrillos 1963 ; Eigsti 1973 ; Simon 1970 ; Street 1981 ; Scanzoni 1982). Eigsti (1973)는 Bustrillos의 연구를 토대로 경험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Eigsti는 價値性向에 있어서 基本概念을 運命論-支配論의 연속으로 보고 運命論的인(fate oriented)사람은 課業中心(task style)이고 支配論的인(control oriented)사람은 人間中心(person style)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류계층의 주부는 대부분이 운명론적이며 행동제시적 방식(action suggestive mode)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價値性向과 意思決定遂行方式의 관계에서는 人間中心的인 사람이 課業中心的인 사람보다 더 많고 人間中心的인 사람이 課業中心的인 主婦는 보다 支配論的(control oriented)이며, 課業中心的인 주부는 보다 더 運命論的(fate oriented)이라고 결론지었다.

Nichols(1964)는 家庭管理에 있어서 價値를 기초로 意思決定을 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意思決定과 組織(organizing)은 그러한 뜻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家庭管理는 組織과 意思決定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위한 조정체계라고 하였다. 이때 組織을 하는 사람은 課業中心的 類型과 人間中心的 類型으로 구분된다. 前者는 과업자체에

대하여 可視的인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後者는 과업수행자의 성숙과 발달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관심을 두는 경우이다.

Price(1973)는 그의 연구에서 의사결정방식 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태도를 조사하여 課業中心的方法(task centered approach)과 人間中心的方法(human centered approach)으로 분류하였다. 과업 중심적인 사람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심이 많고, 인간중심적인 사람은 목적은 二次的이고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개로 대비되는 의사결정양식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의사결정양식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課業中心의 意思決定을 하는 사람은 效率性, 經濟性, 組織, 計劃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他人의 認定과 支持를 수용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아실현 수준이 낮아서 대체로 전통적인 의사결정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人間中心의 意思決定을 하는 사람은 人間의 成熟, 感情, 創意力, 融通性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意思決定方式을 택하는 사람은 자아실현수준이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內面指向的이어서 독립적이고 自己支持的인 경향이다. 또 해결해야할 특별한 문제 보다는 문제에 관련된 사람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둔다.

이상은 意思決定時 決定者가 결과를 위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가, 혹은 過程을 중요시하는 방법을 택하느냐에 관한 연구들이다. 決定의 內容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價値性向과 결부시켜서 고려할 때 意思決定過程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이것은 실제적인 家庭管理에 있어서 일반화 되고 조직화된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과 관련하여 價値性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家庭管理의 수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근접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ice(1973)가 課業中心的方法和 人間中心的方法으로 구분한 意思決定樣式과 價値性向과의 관련성을 調査分析하고자 한다.

3. 家庭生活滿足

價値와 意思決定의 결과는 家庭生活滿足의 程度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家庭生活에 있어서 滿足의 概念을 정의하려면 우선, 滿足에 관한 概念을 정리하고 家庭生活滿足에 관련된 사항과 家庭生活滿足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Burr등(1979)에 의한 滿足에 관한 한가지 견해는 人間이 갖는 期待와 실제로 받는 補償사이의 일치의 정도이며, 또 하나의 견해는 主觀적으로 경험한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과 같은 현상이다. Rescher(1972)는 人間の 幸福은 一般的 幸福要素가 중요시되며 그 一般的 幸福要素는 人間交互的 分野라고 전제하고, 財産狀態, 物質的·社會的·政治的 環境의 質, 地位, 尊敬, 職務滿足, 自由, 餘暇 등의 활동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Wilson(1965)은 文化價値와 개인적 조정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추정하려고 시도하여, 社會的 調整, 家族調整, 건강, 가정소득, 용돈, 약속, 평가 등이 만족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Burr등(1979)은 滿足과 役割遂行과의 관계를 象徴的 相互作用理論(symbolic interaction theory)에 입각하여 다루었다.

Lewis와 Spanier(1979)는 結婚의 質과 安全性에 관한 연구에서 交換理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論하였다. 즉, 交換理論은 각 개인이 느끼는 만족은 상대방에 있어서는 互惠的 認識(reciprocal perception)이 있을 때에만 서로가 만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家庭生活滿足은 家庭管理體系의 두 개의 下位體系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작이 가능하다. 즉 社會心理的 下位體系(psychosocial subsystem)인 생활표준, 동료감, 자녀관계, 시가관계와, 管理的 下位體系(managerial subsystem)인 경제문제, 가사노동,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등이 가정생활만족의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Deacon과 Firebaugh 1981).

모한, 이상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 변인으로서 교육, 수입, 경제적 지위, 부인의 취업, 사회적 관계등과 그외에 부부 상호요인, 갈등요인, 자녀요인등을 들고 있다.

III. 研究設計 및 方法

1. 研究模型

家庭管理行動에 있어서, 그 動機가 되는 價値와 수행과정으로서의 意思決定方法 그리고 家庭生活의 滿足程度간의 關係를 糾明함으로써 한 家庭의 管理行動的인 면을 評價하고 또한 問題點을 발견하며 家庭管理의 概念을 再整理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와같은 개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研究模型과 研究問題를 設定하였다(圖 1).

1.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따른 主婦의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家庭生活滿足度の 實態를 把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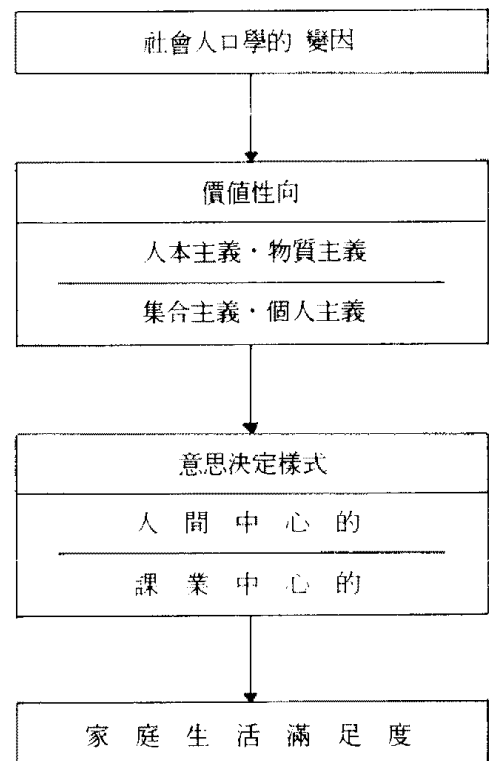


圖 1. 研究模型

2.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과의 關係를 分析한다.

3. 意思決定樣式과 家庭生活滿足度와의 關係를 分析한다.

4.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및 家庭生活滿足度와의 關係를 分析한다.

5. 社會人口學的 變因, 價値性向 및 意思決定樣式이 家庭生活滿足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影響력을 把握한다.

2. 測定道具

1) 價値性向測定道具

價値性向測定은 Bengtson & Lovejoy(1973), Firebaugh, Woodward & Daly(1975) 등이 개발한 가치의 두가지 차원, 즉 人本主義(humanism)/物質主義(materialism)와 集合主義(collectivism)/個人主義(individualism)의 價値性向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 Bengtson 등과 Firebaugh 등이 개발한 가치의 4가지 次元이 韓國都市主婦들에게 있어서도 유사하게 구분될 것인가를 檢證하기 위하여 Rokeach(1973)가 目的的 價値로 분류한 21개 價値項目을 117명의 주부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위를 적도록 하여 그것을 點數化 한 다음 要因分析을 하였다. 要因積載値는 prioric criterion의 決定基準에 따라 0.3 이상인 것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 Factor I 에 9개 항목, Factor II 에 7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예비조사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價値에 관한 項目에서 韓國人의 意義에 부적합한 술어와 표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20개의 價値項目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제생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도를 7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중요하다'를 6점으로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0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要因分析한 결과 Factor I 에 10개, Factor II 에 10개로 분류되었으며, Factor I 은 人本主義와 物質主義 要因, Factor II 는 集合

主義와 個人主義 要因으로 구성되었다.

2) 意思決定方法 測定道具

意思決定方法測定을 위한 질문지는 Price(1973)와 Eigsti(1973)가 사용한 질문을 기초로 하여 人間中心的樣式(person centered style)과 課業中心的樣式(task centered style)을 구분할 수 있는 50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7점 likert 방식으로 하여 '매우 고려한다'에 6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에 0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Eigen value가 1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要因分析한 결과 18개 요인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N-factor=2로 추후분석한 결과 Factor I (人間中心的樣式)에 21개 문항, Factor II (課業中心的樣式)에 21개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Factor I 에서 21문항, Factor II 에서 21문항 중에서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한 후, 人間中心性向測定에 적합한 문항 10개와 課業中心的性向測定에 적합한 문항 10개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3) 家庭生活滿足度 測定道具

家庭生活滿足는 Burr과 그의 동료(1979), Lewis와 Spanier(1979), 그리고 Burr(1970)의 理論을 기초로 하여 家庭生活滿足의 要因이라고 생각되는 6개 항목, 즉, 生活標準一致, 經濟的滿足, 家族間의 意思疏通, 家事勞動, 子女問題, 남편과의 관계와 韓國가정생활의 특수성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과의 관계, 그리고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게 되는 만족등 모두 26개 문항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만족정도는 7점 likert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매우만족'을 +3점에, '매우 불만'을 -3점에 표시하도록 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후 家庭生活滿足 要因別 滿足도와 全體滿足도를 산출하였다.

3. 資料蒐集 및 處理

1) 調査期間 및 內容

豫備調査는 1987年 6月 20日~6月 25日까지 6日間に 걸쳐서 서울사내에 거주하는 主婦 120名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自己記入式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117부를 회수하였다.

質問內容은 社會人口學的變因 12문항, 價値性向을 測定하기 위한 20개 문항, 意思決定樣式에 관한 50개 문항, 家庭生活滿足에 관한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調査結果를 가지고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家庭生活滿足度에 관하여 각 문항별 신뢰도를 검사하고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問項에 대하여는 要因分析을 하여 要因積載值 0.3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本 調査는 1987년 7월 10일~7월 18일까지 9日間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예비조사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價値性向問項 20개, 意思決定樣式에 관한 문항 50개, 그리고 家庭生活滿足에 관한 문항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문항별 신뢰도

| 변 인 | Crombach's |
|--------------------|------------|
| 인본/물질주의 가치성향 | 0.85024 |
| 집합/개인주의 가치성향 | 0.83419 |
| 인간중심적/과업중심적 의사결정양식 | 0.88332 |
| 가정생활만족도 | 0.94135 |

2) 調査對象

본 조사는 研究目的에 부합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연령, 소득, 직업, 교육정도, 가정생활주기, 가족수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類層標集하였다. 유아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학생의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기재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企業體 A, B, C 3개 회사 社員으로서 家庭確立期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인과 家庭縮小期에 해당하는 社員의 어머니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다. 유아원을 비롯한 각급학교는 한강을 기점으로 강북과 강남에서 각각 1개교씩 10개교를 정하고 대학교는 5개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705부를 배부하여 585부를 회수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은 약 86%이며 그중에서 부적합한

표 2.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 변 인 | 구 분 | % |
|------|----------|----------|
| 가족수 | 1~2명 | 8.0 |
| | 3~4명 | 38.0 |
| | 5~6명 | 45.8 |
| | 7~ | 8.0 |
| | 계 | 100(537) |
| 자녀수 | 없음 | 10.8 |
| | 1명 | 8.7 |
| | 2명 | 32.5 |
| | 3명 | 32.2 |
| | 4명 | 12.5 |
| | 5~ | 3.3 |
| 계 | 100(553) | |
| 부인연령 | 21~29세 | 10.4 |
| | 30~39세 | 27.6 |
| | 40~49세 | 45.7 |
| | 50~ | 16.3 |
| | 계 | 100(529) |
| 남편학력 | 중졸이하 | 5.9 |
| | 고 졸 | 27.5 |
| | 대 졸 | 60.0 |
| | 대학원졸 | 6.6 |
| | 계 | 100(512) |
| 부인학력 | 중졸이하 | 18.5 |
| | 고 졸 | 43.7 |
| | 대졸이상 | 37.8 |
| | 계 | 100(524) |
| 남편직업 | 전문기술직 | 17.8 |
| | 행정·관리직 | 17.6 |
| | 사무직 | 32.0 |
| | 판매직 | 15.9 |
| | 서비스직 | 6.6 |
| | 생산직 | 4.3 |
| | 기 타 | 5.8 |
| | 계 | 100(484) |

| | | |
|-------------|-----------|----------|
| 성장지 | 서울 | 34.1 |
| | 기타도시 | 32.1 |
| | 읍·면이하 | 33.0 |
| | 계 | 100(557) |
| 가정생활 주 기 | 확립기 | 9.0 |
| | 자녀취학전 | 10.3 |
| | 자녀국민학교기 | 16.0 |
| | 자녀중·고등학교기 | 35.0 |
| | 자녀중·고등학교기 | 35.0 |
| | 자녀대학교기 | 12.3 |
| | 진수기 | 10.3 |
| | 회복기 | 7.2 |
| 계 | 100(555) | |
| 결혼 지속년수 | 9년이하 | 22.0 |
| | 10~19년 | 43.0 |
| | 20~29년 | 27.5 |
| | 30~ | 7.5 |
| | 계 | 100(546) |
| 월평균소득 | 40만원이하 | 16.0 |
| | 41~60만원 | 23.7 |
| | 61~80만원 | 21.0 |
| | 81~100만원 | 14.4 |
| | 101~120만원 | 8.5 |
| | 121만원~ | 16.4 |
| | 계 | 100(556) |
| 주택형태 | 한옥 | 8.9 |
| | 양옥 | 46.5 |
| | 아파트 | 37.6 |
| | 연립주택 | 7.1 |
| | 계 | 100(553) |
| 부인직업 유 무 | 있다 | 30.6 |
| | 없다 | 69.4 |
| | 계 | 100(553) |

* · 각 변인별 응답자수가 다른것은 해당란에 무응답인 경우 삭제처리 하였기 때문임.

· 직업분류는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80에 의한 것임.

· 가정생활주기 구분은 Bigelow에 의한 것임.

응답지를 제외한 567부를 分析資料로 확정하였다.

3) 調査對象者의 一般의特性(표 2)
(설명 中略)

4) 重要要因의 平均과 範圍(표 3)

價値性向에 관하여는 人本主義, 物質主義, 集合主義, 個人主義에 해당하는 항목에 각각의 점수를 합제한후 平均과 標準偏差를 산출하였다. 人本主義價値性向에서는 평균이 26.3이고 표준편차는 3.8이며 Mean±SD를 산출하여 人本主義價値性向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였다. 物質主義, 集合主義, 個人主義價値性向도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人本主義價値性向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이 集合主義價値性向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個人主義價値性向이었다. 점수범위는 人本主義의 경우 최고가 30점인데 비하여 평균이 26.3인 것은 높은 점수에 빈도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都市主婦의 人本主義, 集合主義價値性向이 物質主義, 個人主義價値性向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意思決定樣式*에 있어서 50개 문항에 대하여 要因分析한 결과, 한 요인에 10개 문항씩,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人間中心的’ 要因과 ‘課業中心的’ 要因으로 命名하였다.

人間中心的의 요인과 課業中心的의 요인으로 선정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平均(Mean) : 13.6과 標準偏差(S.D) : 9.5를 산출하고 Mean±S.D하여 점수가 높은 집단은 人間中心的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것으로, 그리고 점수가 낮은 집단은 課業中心的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人間中心的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사람의 빈도가 커서 이것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人間中心的의 경향으로 점수가 아주 높은 집단(highly person centered ; HP), 人間中心的의 경향으로 점수가 보통인 집단(person centered ; P), 課業中心的인 집단(task centered ; T)으로 구분하였다.

家庭生活滿足度에 있어서는 일반적만족에 5개 문항, 나머지 만족항목에는 각각 3개문항씩으로 모두

표 3. 주요변인의 평균, 범위, 표준편차

| 주요 변인 | 평균 | 범위 | 표준편차 |
|--------|-------|--------|------|
| 가치성향 | | | |
| 인본주의 | 26.3 | 10~30 | 3.8 |
| 물질주의 | 24.2 | 7~30 | 4.4 |
| 집합주의 | 24.9 | 11~35 | 4.1 |
| 개인주의 | 23.8 | 9~30 | 4.0 |
| 의사결정양식 | 13.6 | -32~45 | 9.5 |
| 가정생활만족 | | | |
| 일반적만족 | 26.7 | 8~35 | 5.5 |
| 생활표준일치 | 15.8 | 3~21 | 3.8 |
| 경제적만족 | 14.4 | 3~21 | 4.0 |
| 시대관계 | 14.8 | 0~21 | 4.2 |
| 의사소통 | 15.8 | 3~21 | 3.5 |
| 가사노동 | 14.4 | 3~21 | 3.8 |
| 자녀와의관계 | 15.9 | 4~21 | 3.3 |
| 남편과의관계 | 17.2 | 3~21 | 3.3 |
| 전체만족 | 123.7 | 46~168 | 22.6 |

26개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하면 46~168점의 범위였다. 이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家庭生活滿足도를 측정하였다. 전체만족점수는 86.5/100점으로 높은 편이다. 이것은 본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데에서 오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尺度화된것을 각 자료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독립변인별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家庭生活滿足도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X²검증, 變量分析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相關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변인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多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1. 價値性向

主婦들의 價値性向은 家庭生活週期, 結婚持續年數, 男便學歷, 婦人學歷, 婦人職業有無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밖에 남편의 職業, 월평균소득, 성장지, 가족수, 부인연령, 주거형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人本主義 價値性向은 家庭生活週期, 男便學歷, 婦人學歷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物質主義는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集合主義 價値性向은 結婚持續年數가 10~19년 일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個人主義 價値性向은 부인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中略).

이상에서 볼때 人本主義價值性向은 家庭生活週期가 확대기로 갈수록 높고,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物質主義價值性向은 職業을 갖지 않은 全業主婦의 경우에 더욱 높다. 集合主義價值性向은 結婚持續年數가 10~19년되었을때 가장 높고 個人主義價值性向은 부인학력이 높을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 意思決定樣式

意思決定樣式에 있어서는 人間中心性이 강한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集團을 HP(highly person centered), 보통인 集團을 P(person centered), 課業中心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集團을 T(task centered)등 3集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意思決定樣式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은 가족수, 부인연령, 성장지, 가정생활주기, 결혼지속년수, 부인학력, 남편직업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家庭生活週期和 結婚持續年數등 생활주기단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中略).

3. 家庭生活滿足

본 調査에서는 家庭生活에 대한 主婦들의 滿足

度가 높은편이었다. 滿足하는 程度는 家庭生活滿足의 要因인 一般的滿足, 生活標準의 一致, 經濟問題, 시대문제, 家族간의 意思疏通, 家事勞動, 子女와의 關係, 男便과의 關係등을 內容으로 하여 社會人口學的 變因別로 差異를 調査分析하였다.

家庭生活的 滿足程度는 婦人年齡, 家庭生活週期, 男便學歷, 婦人學歷, 男便職業, 月平均所得, 住宅形態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中略).

4. 價值性向과 意思決定樣式

本節에서는 4가지 次元의 價值性向에 있어서 그 性向이 강한 集團부터 上, 中, 下로 區分하였다. 意思決定樣式은 점수범위가 -32~+45까지로서 이 變因에 있어서도 人間中心의 人은 HP(highly person centered), 보통인 人은 P(person centered), 그리고 課業中心의 人은 T(task centered)로 區分한²⁾ 다음, 價值性向과 意思決定樣式과의 關係를 調査分析하였다.

그 結果 人間指向性이 높은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경우(HP)가 32%, 보통정도의 人間中心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경우(P)가 47%이며 課業中心의 人은 T는 21%이다. 즉 전체의 약 80%가 人間中心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

표 4. 價值性向別 意思決定樣式

| 변 인 | 구 분 | HP | P | T | % (N) | |
|------|-----|----|----|----|----------|--------------------------------|
| 인본주의 | 상 | 38 | 47 | 15 | 100(212) | X ² =11.8 P<.05* |
| | 중 | 29 | 48 | 23 | 100(204) | |
| | 하 | 26 | 46 | 28 | 100(151) | |
| 물질주의 | 상 | 34 | 45 | 21 | 100(194) | X ² =2.7 P<0.608 |
| | 중 | 29 | 51 | 20 | 100(237) | |
| | 하 | 32 | 44 | 24 | 100(136) | |
| 집합주의 | 상 | 39 | 42 | 19 | 100(188) | X ² =2.7 P<.05* |
| | 중 | 29 | 49 | 22 | 100(261) | |
| | 하 | 24 | 53 | 24 | 100(118) | |
| 개인주의 | 상 | 37 | 45 | 19 | 100(210) | X ² =4.9 P<0.3 |
| | 중 | 28 | 50 | 22 | 100(238) | |
| | 하 | 29 | 47 | 24 | 100(119) | |

다. 이것은 Nichols(1964)의 연구에서 人間中心性이 높은 集團이 29%, 보통인 集團이 40%, 課業中心적인 集團이 30%인것과 比較하면 거의 유사한 현상이다.

集團間에 유의차가 있는 것은 人本主義와 集合主義의 경우로서 人本主義價値性向이 높은 사람이 人間中心의인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경우도 85%나 되고 課業中心의 意思決定을 하는 사람은 15%이다. 그리고 集合主義價値性向이 높은 사람이 個人主義인 사람보다 더 人間中心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하고 있다(中略) (표 4).

이와같은 결과는 人間の 價値性向은 人間の 行動을 支配하며 특히 選擇, 判斷, 決定의 基礎가 된다고 하는 Kluckhohn(1967), Rokeach(1973), Bengtson(1973)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Brim등(1962)이 意思決定樣式은 傳統의 特性보다 價値性向이 더 큰 變數로 작용한다고 한 主張과도 關聯된다.

Eigsti(1973)는 價値性向을 支配論(control)과 運命論(fatalism)의 두가지 차원으로 놓고 意思決定樣式과의 관계를 연구한바 있는데 支配論的 價値性向을 가진 集團은 人間中心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하고 運命論的인 集團은 課業中心의 意思決定樣式을 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와 관련지어 人本主義價値性向을 가진 사람이 人間中心의인 意

思決定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배론은 人間이 運命을 支配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人本主義와 통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物質主義와 個人主義의 價値性向을 갖는 경우에서도 유의차는 없었으나 人間中心의인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본 調査가 家庭內에서 家族間에 이루어지는 意思決定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意思決定은 結果보다는 過程을 重要하게 생각하는 人間中心의인 意思決定樣式을 더 많이 택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와같이 結果는 Melson(1980)이 指摘한 바와 같이 研究方法에 있어서 質問紙法이나 面接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實際로 行動하는 것과는 一致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結果가 나타났다고 볼수도 있다.

5. 意思決定樣式과 家庭生活滿足

意思決定樣式에 있어서는 人間을 중심으로 決定하는가 혹은 課業의 結果에 依從하여 決定하는가로 區分하여 調査하였다. 먼저 家庭生活的 全體的인 滿足에 대한 調査에서 人間中心의인 意思決定樣式을 택한 集團의 滿足度는 課業中心의인 意思決定樣式을 택한 경우보다 10점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표 5. 意思決定樣式別 家庭生活滿足度(平均値)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인간중심적 상 (HP) | 27.72 | 16.78 | 14.95 | 15.24 | 16.70 | 15.02 | 16.65 | 17.90 | 129.46 |
| 인간중심적 중 (P) | 26.27 | 15.53 | 14.20 | 14.67 | 15.60 | 13.74 | 15.45 | 16.95 | 120.86 |
| 과업중심적(T) | 25.95 | 15.01 | 14.01 | 14.62 | 14.89 | 13.81 | 15.43 | 16.29 | 118.23 |
| F 비 | 5.41* | 10.19* | 2.77 | 1.22* | 12.60* | 6.33* | 8.19* | 9.42* | 11.76* |

1 : 일반적 만족

4 : 시댁관계 만족

7 : 자녀에 대한 만족

2 : 생활표준일치 만족

5 : 의사소통 만족

8 : 남편에 대한 만족

3 : 경제적 만족

6 : 가사노동 만족

9 : 전체만족

* $P < .01$

意思決定樣式에 따른 滿足의 要因에서는, 生活標準一致滿足, 意思疏通滿足, 자녀에 대한 만족, 남편에 대한 만족 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있다($P < .001$) (표 5). 즉 人間指向性이 높은 意思決定樣式을 택하는 경우에 더 만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家族의 關心과 興味, 그리고 家族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意思決定을 할때 滿足程度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一般的 滿足, 家事勞動에 대한 滿足에서도 人間中心的인 意思決定을 하는 경우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家事勞動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家事作業을 하는 것이므로 일의 결과보다도 過程을 重要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Nichols(1964)가 지적한 바와 같이 家事作業의 主體는 人間, 즉 家族이므로 可視的인 作業의 結果보다는 作業을 遂行하는 사람의 能力과 狀況에 맞게 意思決定을 하는 경우에 더욱 滿足하게 될 것이다.

6.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및 家庭生活滿足度와의 關係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的 單純相關關係에서 人本主義價値性向은 集合主義와 正의 相關을 갖는다. 표 6에서와 같이, 人本主義價値性向과 集合主義價値性向은 매우 높은 相關關係를 보인다($\gamma = 0.61, P < .001$). 또한 人本主義價値性向은 物質主義 및 個人主義價値性向과 正의 相關關係를 보인다($\gamma = 0.56, P < .001$). 集合主義價値性向과의 相關關係는 낮게 나타났다($\gamma = 0.35, P < .01$). 意思決定樣式은 人本主義價値性向과 낮은 正의 相關關係를 가지며($\gamma = 0.19, P < .001$), 集合主義價値性向과는 正의 相關關係는 있으나 相關度는 낮게 나타났다($\gamma = 0.17$). 意思決定樣式과 個人主義價値性向과는 매우 낮은 相關度를 보이며($\gamma = 0.07, P < .05$), 物質主義價値性向과는 統計的으로 의미있는 相關關係를 보이지 않았다.

家庭生活滿足要因別로 보면 人本主義와 상관이 큰 요인은, 一般的 滿足, 生活標準一致滿足, 經濟的 滿足, 意思疏通滿足, 男便에 대한 滿足 등이며, 人

표 6. 主要變因과 家庭生活滿足要因의 相關關係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1. 인본주의 | - | | | | | | | | | | | | | |
| 2. 물질주의 | 0.56* | - | | | | | | | | | | | | |
| 3. 집합주의 | 0.61* | 0.35* | - | | | | | | | | | | | |
| 4. 개인주의 | 0.44* | 0.57* | 0.36* | - | | | | | | | | | | |
| 5. 의사결정양식 | 0.19* | 0.03 | 0.17* | 0.07* | - | | | | | | | | | |
| 6. 일반적 만족 | 0.18* | 0.14* | 0.20* | 0.21* | 0.11* | - | | | | | | | | |
| 7. 생활표준일치 | 0.18* | 0.14* | 0.15* | 0.20* | 0.05 | 0.62* | - | | | | | | | |
| 8. 경제적만족 | 0.14* | 0.12* | 0.12* | 0.15* | 0.02 | 0.69* | 0.52* | - | | | | | | |
| 9. 시력관계만족 | 0.06 | -0.01 | 0.09* | 0.08* | 0.01 | 0.45* | 0.45* | 0.32* | - | | | | | |
| 10. 의사소통만족 | 0.19* | 0.14* | 0.23* | 0.24* | 0.07* | 0.62* | 0.69* | 0.49* | 0.58* | - | | | | |
| 11. 가사노동 만족 | 0.14* | 0.08* | 0.16* | 0.15* | 0.04* | 0.55* | 0.52* | 0.58* | 0.42* | 0.56* | - | | | |
| 12. 자녀에 대한 만족 | 0.09* | 0.10* | 0.12* | 0.14 | 0.04* | 0.48* | 0.42* | 0.44* | 0.34* | 0.52* | 0.56* | - | | |
| 13. 남편에 대한 만족 | 0.23* | 0.22* | 0.25* | 0.21* | 0.13* | 0.64* | 0.73* | 0.44* | 0.44* | 0.67* | 0.48* | 0.50* | - | |
| 14. 전체만족 | 0.21* | 0.15* | 0.21* | 0.22* | 0.07* | 0.83* | 0.82* | 0.74* | 0.66* | 0.83* | 0.76* | 0.67* | 0.80* | - |

*위의 相關係數는 최소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本主義價値性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一般的 滿足, 生活標準一致滿足, 經濟的 滿足,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만족등에서 正의 相關關係를 보인다. 物質主義價値性向과 시댁관계와의 상관은 낮으며 統計的으로도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표 6에서 集合主義價値性向과 家庭生活滿足要因은 전체항목과 相關關係가 있으며, 특히 일반적 만족, 生活標準一致滿足, 意思疏通滿足, 家事勞動滿足,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만족등과 正의 相關關係를 갖는다($P < .001$). 個人主義價値性向에 있어서도 家庭生活滿足要因의 全體項目과 正의 相關關係를 갖는다($\gamma = 0.15 \sim 0.24$, $P < .001$, 단 시댁관계는 $P < .05$).

이상에서 볼때 人本主義價値性向을 갖는 사람과 集合主義價値性向을 갖는 사람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人間中心의인 樣式을 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댁관계를 除外하고는 家庭生活에 滿足하고 있으며 人間の 價値와 關心을 重要視하는 사람들은, 個人보다는 集團을 고려하게 되므로 생활의 滿足程度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物質主義價値性向을 갖는 사람들은 意思決定樣式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人間中心의일 수도 있고, 課業中心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目的達成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두가지 중 어느 한가지 양식을 택한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意思決定樣式이 人間中心의 일때 일반적 만족, 意思疏通, 남편에 대한 만족, 그리고 全體的인 滿足등이 더 높아진다. 이것은 家族의 問題에 관하여 決定을 함에 있어서, 가족의 形便과 狀態, 그리고 能力 등에 關心의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生活標準, 經濟的 滿足, 시댁관계, 家事勞動, 자녀에 대한 滿足과 相關이 없다는 것은 위의 項目들이 單純히 意思決定樣式에 따라 滿足도가 높아질 수 없는 보다 根本的인 要因이 作用한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그러한 要因에 관한 研究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진다.

7. 家庭生活滿足度の 回歸分析

지금까지 社會人口學的 背景變因,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그리고 家庭生活滿足度間的 聯關關係를 一元變量分析(one-way ANOVA)과 X^2 檢證結果를 中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家庭生活滿足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變因들과의 因果關係를 보다 精밀히 검증하기 위하여는 分析過程에서 각각의 變因들이 從屬變因인 家庭生活滿足도에 獨自的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家庭生活滿足度の 多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시도되었다. 多重回歸分析은 變量分析에 비하여 보다 많은 變인을 效果의으로 統制할 수 있으며, 특히 獨立變因이 等間尺度(interval scale)인 경우에 보다 精確한 因果關係의 메카니즘을 밝혀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우선, 家庭生活滿足의 回歸分析에는 가족수, 부인연령, 월평균소득, 부인직업유무, 人本主義, 物質主義, 集合主義, 個人主義, 그리고 意思決定樣式이 獨立變因으로 설정되었다. 이들은 一元變量分析의 결과 家庭生活滿足도에 유의미한 影響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명된 變인들이다. 豫備分析過程에서 背景變因중 子女數는 가족수와, 그리고 家庭生活週期 및 結婚持續年數는 婦人年齡과 매우 높은 共線性(collinearity)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獨立變數에서 제외되었다. 남편학력과 직업, 그리고 부인학력도 월평균소득과 매우 높은 相關關係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 變인들 역시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또한 성장지와 住宅形態는 獨立變數가 等間尺度이어야 한다는 回歸分析의 全體條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인직업유무는 名目尺度(nominal scale)의 要因이지만 豫備分析에 중요한 變인으로 判明되었으므로 假變因(dummy

variable)으로 轉換시켜서 獨立變因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回歸分析에서 부인직업유무는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그리고 직업이 없으면 0의 값을 갖게 된다. 回歸分析過程에서 부인직업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獨立變因들은 一次變量分析이나 X² 檢證에서와는 달리 수집된 원자료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等間尺度化하였다.

이러한 回歸分析過程에서, 價値性向을 나타내는

人本主義와 物質主義, 그리고 集合主義와 個人主義는 서로 대비되는 속성을 가지며 따라서 서로 높은 負의 相關關係를 보인다. 이러한 경우, 두변인이 동시에 한 回歸分析模型에 포함되면 回歸方程式의 算出過程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物質主義와 集合主義는 獨立變因에서 제외되었다. 월평균소득 역시 부인연령 및 다른 獨立變因들과의 복합적인 多重共線性을 갖는 것으로

표 7. 家庭生活滿意度の 回歸分析結果

| | 家庭生活滿意度 | |
|----------------|--------------|----------------|
| | 비표준화 회귀계수(B) | 표준화 회귀계수(Beta) |
| 가 족 수 | -9.77 | -0.51** |
| 부 인 연 령 | 3.31 | 0.31** |
| 부인직업유무 | -1.00 | -0.07** |
| 인 본 주 의 | 0.24 | 0.04* |
| 개 인 주 의 | 0.29 | 0.05** |
| 의사결정양식 | 0.43 | 0.14** |
| 상 수 | | 26.70 |
| R ² | | 0.92 |
| F비 | | 597.81 |
| 사 례 수 | | 331. |

*P<.05 **P<.001

표 7에 제시된 回歸分析結果를 토대로 한 家庭生活滿意度の 回歸方程式은 다음과 같다.

$$\text{家庭生活滿意度} = 26.70 - 9.77(\text{가족수}) + 3.31(\text{부인연령}) - 1.00(\text{부인직업유무}) + 0.24(\text{인본주의}) + 0.29(\text{개인주의}) + 0.43(\text{의사결정양식})$$

그러나 이 方程式에서 부인직업유무는 1과 0의 값을 갖는 假變因(dummyvariable)이므로 부인의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별도의 回歸方程式으로 정리되게 된다.

婦人職業이 있는 경우 :

$$\text{家庭生活滿意度} = 25.70 - 9.77(\text{가족수}) + 3.31(\text{부인연령}) + 0.24(\text{인본주의}) + 0.29(\text{개인주의}) + 0.43(\text{의사결정양식})$$

婦人職業이 없는 경우 :

$$\text{家庭生活滿意度} = 26.70 - 9.77(\text{가족수}) + 3.31(\text{부인연령}) + 0.24(\text{인본주의}) + 0.29(\text{개인주의}) + 0.43(\text{의사결정양식})$$

표 7에서 이 回歸模型에 포함된 모든 獨立變因들은 從屬變因인 家庭生活滿意度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中略).

판명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인 회귀분석에서는 家族數, 婦人年齡, 婦人職業有無, 人本主義, 個人主義, 意思決定樣式 등 6개의 獨立變因만이 사용되었다.

회귀분석결과를 요약한 표 7을 보면, 從屬變因인 家庭生活滿足度の 說明된 變量은 매우 높다($R^2 : 0.92$). F비(597.81)의 유의도 검증결과도 全體回歸分析方程式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사례수가 331로 매우 작아진것은 무응답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全體削除(listwise deletion)方式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獨立變數들간의 相互作用效果(interaction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이 회귀모델에는 相互作用項(interaction term)이 포함되지 않았다.

V. 結論 및 提言

본 연구는 家庭生活滿足도가 主婦의 價値性向 및 意思決定樣式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假定하고 다음과 같이 設計되었다.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家庭生活滿足度の 測定道具를 作成하고 그 測定道具를 實際에 適用함으로써 主婦의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生活滿足度の 實態를 분석하고 나아가 三要素間의 關係 및 影響變因을 규명함으로써 家庭生活滿足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調査對象者의 價値性向은 人本主義, 集合主義가 支配的이었으며 意思決定樣式도 人間中心的方法을 택함으로써 家庭生活滿足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家庭管理者인 主婦가 人間中心的으로 行動할수록 滿足한 生活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人本主義價値性向은 남편과 부인의 學歷이 높고 家庭生活週期가 확대기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物質主義價値性向은 全業主婦일 때와 가족수가 많을때 강하게 나타났다. 集合主義는 家庭生

活週期가 확대후기일 때 높게 나타났으며 個人主義價値性向은 學歷이 높고 年齡이 적은 주부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教育水準, 家族生活週期, 年齡이 價値性向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人本主義와 集合主義價値性向은 주부의 연령이 40대인 확대후기로 갈수록 크게 나타나고 젊은 主婦에게서 個人主義性向이 큰 것을 관련시켜 볼 때, 우리나라의 現代化過程에서 世代別로 나타나는 價値性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젊은 세대는 個人主義이고 중년기 이후에는 集合主義價値性向을 갖는다면, 이러한 研究를 時系列的으로 실시하여 變化推移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意思決定樣式은 婦人年齡이 30·40대, 家庭生活週期가 확대후기, 남편직업이 專門職, 販賣·서어비스職일 때 人間中心的인 意思決定을 하며 家庭生活週期가 確立期, 縮小期일 때 課業中心的인 意思決定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年齡, 職業, 家庭生活週期가 意思決定樣式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4) 家庭生活的 만족은 婦人年齡이 적고, 남편과 부인의 學歷이 높고 남편직업이 專門·管理職이며 所得이 많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즉 主婦가 젊고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을수록 家庭生活滿足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문숙재의 지적과 같이 家庭生活的 質에 영향을 미치는 家族關係, 經濟生活, 家事勞動등이 家族의 生活滿足度の 主要要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大學教育을 받고, 家庭管理知識이 많을수록 家庭生活에 만족한다고 한 Spurrier의 연구도 같은 이론이다. 따라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家庭管理教育이 要求된다.

5) 價値性向과 意思決定樣式과의 關係에서는 人本注意, 集合主義價値性向을 가진 사람은 人間中心的인 意思決定樣式을 택하고 物質注意價値性向을 가진 사람은 課業中心的인 意思決定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gsti가 價値性向은 人間行動의 目標, 手段, 樣

식을 선택하는 指標라고 한것에 비추어보면, 主婦의 家庭管理行動은 價値와 意思決定의 關聯性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意思決定樣式과 家庭生活滿足度와의 관계에서는 人間中心的인 意思決定을 하는 사람들이 家庭生活滿足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生活標準一致, 意思疏通, 자녀와의 關係, 남편과의 關係, 그리고 家事勞動領域에서 滿足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家族關係와 生活標準의 일치가 만족의 重要한 要因임을 알 수 있다.

7) 回歸分析한 結果 家庭生活滿足도는 家族數가 적고 婦人年齡이 적으며 就業主婦이고 人本主義價値性向이 크고 人間中心的인 意思決定이 이루어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分析結果를 토대로 家庭生活滿足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子女數를 포함한 家族數가 適定水準 以上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家族計劃을 주도하는 社會的인 政策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家庭生活週期가 확대기일 때 家庭生活滿足도가 낮다는 결과는 이 시기의 效果的인 家庭管理의 必要性을 提示해 주고 있다. 따라서 家庭生活的 年輪과 더불어 平生教育을 통한 家庭管理의 再教育이 요구된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人本主義 傾向이 강하며 家庭生活에 더 만족한다는 결과를 볼 때, 국민의 教育水準을 向上시킴으로써 人間中心的인 意思決定을 통하여 家庭生活的 만족을 增進시킬 수 있다.

넷째, 就業主婦일 때 家庭生活滿足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現代社會에서의 二重役割의 問題點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就業主婦들의 家庭生活滿足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족들의 積極적인 理解와 協助, 家族間의 役割分擔, 確固한 家庭哲學 및 職業意識을 再定立할 必要가 있으며 生活時間의 配分에 있어서도 家庭과 職場生活的 均衡을 維持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先行研究에서, 主婦가 갖는 職業의 種類와 動機에 따라 家庭生活에 더욱

滿足한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앞으로는 그러한 點에 留意한 研究도 就業主婦의 生活滿足測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이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그리고 家庭生活滿足度 등의 測定道具는 家庭管理行動研究의 指標로서 適用可能性을 提示하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에 관하여 時系列的인 比較研究과 都·農간의 比較研究를 통하여 새로운 變인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그리고 家庭生活滿足度 등 各要因에 관하여 深層的인 研究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多角的인 因果關係를 分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主부뿐만 아니라 남편을 포함시켜 남편의 價値性向, 意思決定樣式 그리고 家庭生活滿足도를 關連시켜 研究分析함으로써 가정 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두헌: 價値論, 博英社: 서울, 1975
- 2) 문숙재: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19(4): 65-71, 1981
- 3) 문숙재: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본 가정의 안정 기능. 대한가정학회지 21(4): 107-116, 1983
- 4) 문숙재·정은숙: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1): 149-167, 1985
- 5) 박성연·최혜경: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1): 71-85, 1985
- 6) 서병숙·임정빈: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1): 51-70, 1973
- 7) 유명주: 한국 도시 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가정대학 논문집 4, 서울대학교, 1979
- 8) 윤정혜: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67-88, 1986

- 9) 이정우 :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 103-132, 1984
- 10) 이정우 : 전문직 여성의 가족관계관. 아세아 여성연구 13, 숙명여자대학교 : 6-8, 1974
- 11) 이정우 : 도시여성의 의식구조. 아세아 여성연구 19,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0
- 12) 임정빈 · 김윤경 : 가정생활의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3) : 115-130, 1983
- 13) 임정빈 · 정혜정 :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 71-93, 1986
- 14) 장명옥 :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장명옥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 45-101, 1976
- 15) Ater EC : *Inter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ies and Managerial Components in Selected Family Situat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69*
- 16) Bengtson VL :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June) : 358-371, 1975*
- 17) Bengtson VL & Lovejoy MC :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 6(July/August 1973) : 880-912, 1973*
- 18) Blosser-Reisen L : *Grundlagen der Haushaltsführung. Burgbucherei Wilhelm Schneider : 66-70, 1975*
- 19) Brim OG, Glass DC, Lavin DE & Goodman N : *Personality and Decision Process. Palo Alto,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14-25, 1962*
- 20) Burr WR, Leigh GK, Day RD & Constantine J :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II, ed.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EL, New York : The Free Press : 66-78, 1979*
- 21) Bustrillos NR : *Decision-Making Styles of Selected Mexican Homemaker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4*
- 22) Davis MJ : *Decision Making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Household Activities in New York State Home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of Cornell University, 1957*
- 23) Eigsti MH : *Interrelationships of Value Orientation, Decision-Making and Decision-Implementing Style of Selected Low Socio-Economic Status Black Homemaker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3*
- 24) Engebreston, Carol LC : *Analysis by a Constructed Typology of Wives' Values Evident in Managerial Decision Situation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5*
- 25) Firebaugh F, Weaver CR & Warren RD : *Reliability of Value Orientation Sca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 74-89, 1975*
- 26) Firebaugh F, Woodward J and Daly R : *Homemaker's Value Orientation to Education and Job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 90-102, 1975*
- 27) Hair Jr JF, Anderson RE, Tatham RL, and Grablovsky BJ :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Petroleum Pub., Co., 1979*
- 28) Hayes MP & Nick S :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 669, 1971*
- 29) Hoffman LW : *Social Change, the Family and Sex Differences. Address of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October, 1976*
- 30) Holman BT : *The Influence of Community Involvement on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 145, 1981*
- 31) Kim Doo-Sub : *The Curvilinearity between Income and Fertility : Evidence from Korea. Bulletin of the Pop & Dev. Studies Center 12 : 1-20, 1983*
- 32) Kluckhohn C & Others :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t Par-*

- sons and Edward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432, 1967
- 33) Kohlman EL & Francess : *Assessing Values Related to Home and Family Life*.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9(Nov. 1970) : 656-660, 1970
- 34) Magrabi FM : *Investigation Values and Decision : Some Questions of Methodology*. *Journal of Home Economics*(Dec. 1966) : 795-799, 1966
- 35) McKee WW : *Values in Home Management. in Values and Decision Making*, (Wash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n.d.), 1969
- 36) Melson GF : *Family and Environment, An Ecosystem Perspective*. Burgess Publishing Company : Minneapolis, 1980
- 37) Nichols A : *Person-Centered and Task-Centered Styles of Organizat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1964
- 38) Paolucci B, Hall OA & Axinn NW : *Family Decision Making ;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7
- 39) Price DZ : *Relationship of Decision Styles and Self Actualiz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September 1973) : 12-20 1973
- 40) Rokeach M : *The Nature of Human Values*. The Free Press : New York, : 26-52, 1973
- 41) Scanzoni J : *Sexual Bargain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cago and London, 1982
- 42) Street LJ : *The Relation Between Sex Role Attitudes and The Report of Family Decision Making*.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81